2007년 중량물 포장업계 전망과 협회 사업

한국중량물포장협회
부회장 김 형 빈

중량물 포장업계의 2006년 한 해는 지난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였습니다. 올 해 역시 자동차, 전자, 조선 등 일부 업종에 한하여 수출이 신장되었으나 많은 중소기업의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서 대부분의 중량물 포장업체의 포장 물량도 감소하여 물량 확보를 위한 과당 경쟁으로 덤핑하는 사례도 계속되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하반기 부터는 환율이 급등하고 있어서 수출 주력 품목마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각 기업의 수익 구조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당 협회는 올 한 해를 이러한 어려움을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에 주력하고 장기적으로 중량물 포장업의 공동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개발,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중량물 포장업의 전체적인 통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까지 정확한 통계 자료조차 없으므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올 한 해는 중량물 포장업의 기초자료 조사 및 이를 기초로 한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는 사업에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2006년도에는 그 동안 실시해오던 지도교육 사업에 초급강좌 및 중급강좌를 추가하여 우선 초급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용 교재 개발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교류 사업에 중국과의 교류사업을 개시하여 지난 5월에 중국 북경에서 제1차 한중 교류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 중, 일 포장기술 교류회 개최의 가능성을 열러 놓았습니다. 그리고 포장 실무자들의 선진 일본 포장 기술을 견학할 수 있도록 견학프로그램을 만들어 지난 10월에 23명이 일본의 포장업체를 견학, 연수하고 돌아왔는데 그 효과가 좋아서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포장실무자 일본포장업체 견학>

또한 한국표준협회와의 협약에 의하여 "수출품 포장용 바깥틀상자"의 규격을 개발하여 단체표준으로 등록하고 회원사에 규격 설명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로서 바깥틀상자의 대외 신인도를 확보하고 포장 품질 및 포장비 절감 목표를 달성하는데 일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2006 한중 포장기술 교류회>

이러한 2006년도의 사업에 이어서 협회는 다음의 사업의 내용으로 어려운 여건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지도 교육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설계 실무자가 합리적인 포장 설계를 통한 원가 절감을 꾀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교육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2005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해본 중간 관리자 양성 과정의 확대 실시 뿐만 아니라 초급자 양성 과정, 그리고 중급강좌도 개설하여 운영의 합리화를 통한 원가 절감 및 품질 향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초급강좌 교육>

둘째,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실시한 공동구매 알선 사업을 확대하여 이로부터 얻어진 재원을 인력 양성, 각종 자료의 작성, 배포 및 국제 교류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주력해온 부자재 공동구매 알선 사업을 원자재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나갈 예정인데 이 사업으로 저렴한 양질의 원부자재의 공급이 기업의 수익 구조 개선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포장기능공을 양성하고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기능공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자격증 도입 계획을 적극, 검토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일본의 기능공 자격 제도에 대한 각종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넷째, 2006년도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시하지 못한 업계의 실태 조사를 하여 정확한 통계 자료를 만들어 중량물 포장업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정부에 건의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포장비의 산출 기준을 마련하고 포장비 자동 산출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여 과당 경쟁으로 인한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원가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부당한 덤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섯째, 적극적인 국제 교류 및 해외 조사단 파견을 통하여 각국의 목제포장재 규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대응책을 마련하여 업계에 신속히 전달하여 이로 인한 클레임 발생을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007년 5월에는 이미 서울에서 한, 중, 일 포장 기술 교류회를 개최하기로 3국이 합의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교류회 준비를 착수하였습니다.

일곱번째, 당 협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협회 운영을 활성화함과 아울러 분야별로 업무를 전문화하여 작은 조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모든 계획이 업계 모든 회원사들이 공감하여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으며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더욱더 어려움이 예상되는 2007년을 오히려 중량물 포장업계의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해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